고대근동학의 배경에서 본 창조 이해
—창 1:1-5를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천안대 기독신대원 원장, 구약학)

목차

서론

본론: 우주창조와 하나님 은혜왕국의 중심부인 왕궁/신전 건축

1. 태초에

2. 그가 창조하시니라

3. 하나님이

4. 천지를

5. 성령님과 우주창조

6. 성령님과 인간창조

결론

서론

히브리어 일곱 단어로 구성된 창세기 1장1절(*뻬레쉬트 빠라 엘로힘 에트 핫솨마임 베에트 하아레쯔*; בְּרֵאשִׁית בָּרָא□ אֱלֹהִי□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은 신구약 성경 1189장 전체를 받치고 있는 모퉁이 돌이다. 성경을 시작하는 이 본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와 해석을 낳았지만, 여전히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인 동시에 가장 애매한 사실을 내포하며. . . 세상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무(無)에서 만드셨다는 결론만은 분명하다"[1]는 루터의 고백에 우리는 동의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잘 안다고 속단하는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많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야아콥 쿨리(Yaakov Kuli; 1689-1732)는 그의 유명한 창세기 1:1의 해설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신비들 속으로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아야 함이 중요하다. . . 만일 누가 자신의 시간을 이런 사실들을 심사숙고하는데 보낸다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2] 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 첫 구절의 올바른 이해가 성경 전체를

---

1) Martin Luther, *The Creation: A Commentary on the First Five Chapters of the Book of Genesis*, trans. Henry Cole (Edinburgh: T. & T. Clark, 1858), 23의 재인용인 John H. Sailhamer, *Genesis Unbound: A Provocative New Look at the Creation Account* (Sisters, OR: Multnomah, 1996), 21.

2) Rabbi Yaakov Culi, *The Torah Anthology: MeAm Lo'ez* Genesis I, trans. Rabbi Aryeh Kaplan (New York / Jerusalem: Moznaim, 1988), 35. 또한 Midrash의 *Bereishit Rabbah* (Parashah One, Midrash Five)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창조기사의 집중적이고 분석적이며 철학적인 연구에 대해 시 31:20[원문 19]에 근거하여 "입을 다물 것(תֵּאָלַמְנָה)"을 경고함에 관하여 Wilfred Shuchat, *The Creation according to the Midrash Rabbah* (New York: Devora, 2002), 23-27을 보라. 칼빈의 비슷한 지적에 관하여 *Calvin's Commentaries*, vol. 1: Genesis, trans. John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48), 57, 61-62;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ed., John T. McNeill,

연구하는 데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본문과 씨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본문을 대하는 필자의 전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1) 창세기 1-2장의 우주창조와 인간창조의 기사는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를 통하여 영감으로 기록된 '모세오경'의 시작부분이다. '모세오경'의 성경적 명칭[3]과 유대교 역사적 명칭[4]은 모세오경이 '다섯 분책의 단권'으로서 하나의 주제를 가짐을 입증한다. 소위 J(Jahwist 주전 10세기 중엽)-E(Elohist 주전 8세기 중엽)-D(Deuteronomist 주전 621년 요시아 왕)-P(Priestly Code 주전 6세기)라는 상이한 4 자료로 모세오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진보주의자들의 자료비평(Source Criticism)이나 문서설(Documentary Hypothesis)의 가상적 이론은 최근 모세오경의 문예-신학적 정밀분석 연구를 통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과[5], 또한 단일 저자 모세의 치밀한 구성적 전략[6]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게 되었다.

(2) 창세기 1:1은 창세기, 모세오경, 구약 전체, 더 나아가 신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의 우주와 인간창조의 하나님은 창조언약[7], 아담언약(창 3:14-19), 노아언

---

trans. Ford Lewis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I.xiv.20.

3) "모세의 율법의 책"(סֵפֶר תּוֹרַת מֹשֶׁה—수8:31; 23:6; 왕하14:6; 느8:1); "모세의 책"(סֵפֶר מֹשֶׁה—스6:18; 느13:1; 대하25:4; 35:12; το βιβλιον Μωυσεως—막12:26); "모세의 율법"(תּוֹרַת מֹשֶׁה—수8:32; 삿4:11; 왕상2:3; 왕하23:25; 말4:4; 단9:11; 스3:2; 7:6; 대하23:18; 30:16; ὁ νομος Μωυσεως—눅2:22; 24:44; 요7:23; 행13:39; 15:5; 28:23,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고후9:9; 히10:28); "모세와 선지자들"(눅16:29,31; 24:27; 비교: 행26:22, "선지자들. . .과 모세");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마22:40; 눅16:16; 행13:15; 롬3:21).

4) 주후 2세기의 Origen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헤 펜타튜코스*(ἡ πεντατευχος; 영어의 Pentateuch)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Tertullian이 Marcion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인용했다. "*헤*(하나) *펜타*(다섯) + *튜코스*([두루마리 운반] 통)"란 합성어는 "다섯 개의 두루마리로 나눈 한 권의 책"이란 뜻이다. 주후 4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탈무드 전통의 '율법의 오분의 일 다섯'(חֲמִשָּׁה חֻמְשֵׁי תוֹרָה; 비교: 시편 5권; 오축[五軸; 메길로트—아, 룻, 애, 전, 에]) 역시 모세오경이 두루마리의 분량에 의해 5등분되었으나 본질상 단권의 책으로 인정된 것을 설명해준다(따라서 현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Chum(m)ash, חֻמָּשׁ라 부름). 주전 1세기에는 벌써 창세기-신명기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 문헌적 증거가 있고, 사마리아 오경이나 70인경 모두 오경 각권의 저자를 모세로 밝히며, 유대인 역사가 Josephus(주후 1세기)도 오경을 언급한다.

5)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1-24:11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 비준(ratification) 기사는 단일 저자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19:3-6과 20:22-24:2이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또 다시 20:22-24:2이 24:3-11과 병행하며, 20:22은 20:1-17의 하나님의 직접적 십계명 선포와 그 뒤를 잇는 20:18-21의 짧은 에피소드를 전제하며, 19장 역시 통일된 한 기사이기 때문이다. T. D. Alexander, "The Sinai Narrative — A Test Case," *From Paradise to the Promised Land* (Grand Rapids: Baker, 2002), 62-79를 보라.
또 다른 실례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וַיְהִי כְּכַתּוֹת)'"(신 31:24) 라는 언급은, 독자가 이것을 24절 이하를 포함하는 오경 전체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말을 이해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경 자체 내에서, 우리는 오경의 완성에 대해 읽을 수 있다. 이것은 모세가 방금 끝낸 책이 오경의 초기판(an earlier edition)이라는 논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라는 31:22의 말씀이 언급하는 "노래"란 그 뒤를 잇는 신 32:1-43에 기록된 노래가 분명하다. John H. Sailhamer,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Theology: A Canonical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1995), 43을 보라.

6) 이 주제에 뛰어난 필독서인 Sailhamer, John H.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Zondervan, 1992). 김동진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상) (서울: 새순 출판사, 1994), 27-162를 보라.

7) 창조언약에는 우주(창 1:14; 8:22; 렘 33:20-21, 25-26; 31:35-37; 호 6:7), 인간의 노동(창 1:26-28;

약(창 6:17-22; 8:20-22; 9:1-7, 8-17)을 거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언약(창 12:1-3; 15:1-21; 17:1-14; 비교. 이삭언약[창 22:15-19; 야곱언약[창28:13-22])의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관련짓는다.[8] 출애굽기 19:4-6의 시내산언약[9]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 겸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보물"로 삼으시고, 십계명을 중심한 '언약서'를 주시며(출 20-23장; 24:7), 여호와의 왕궁/신전으로서의 "성막" 건축을 명하실 때도(출 25-31장, 35-40장) 후론하겠거니와 창세기 1-2장의 우주창조와 연결시켜 우주창조와 성막건립 본문 각각은 문예-신학적으로 구성적 전략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우주와 인간창조의 사건은 어느 인생도 경험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반드시 고대근동의 문화종교적 콘텍스트에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심상'(imagery)[10]이나, '은유'(metaphor) 혹은 '의인화'(anthropomorphic)[11]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창세기 1-2장의 창조기사에 사용된 어휘들의 분석과 출애굽기 성막기사의 유사성의 배경에서 그 심상은 "왕/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왕국의 중심부인 왕궁/신전을 그분의 설계도면을 따라 시공하시며 감리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론: 우주창조와 하나님 은혜왕국의 중심부인 왕궁/신전 건축

1. "태초에"(*베레쉬트*, בְּרֵאשִׁית)

고대근동(구약성경의 역사적 무대로서 현재의 중동에 해당)의 풍습은 책의 맨 첫 단어(들)가 그 책의 이름이 되므로, 유대인들도 창세기를 "태초에"(직역, "시작[*레-쉬-트*, רֵאשִׁית] 안에서[*베*, בְּ]")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베레쉬트*(בְּרֵאשִׁית)라 부른다.

"시작"은 모든 피조물의 시간적 출발점을 가리킨다.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에,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시 90:2)라는 고백을 통하여 시간의 시작(-부터)과 종결(-까지)의 전치사에 영원이란 무시간적 개념을 연결한 성경의 역사관을 본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다(사 46:10). 즉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관은 창세기 1:1의 "태초에"로 시작되는 하나님 창조(창 1-2장)—인간타락과 하나님 구속(창 3장-계 20장)—하나님 완성(계 21-22장)의 소망적 직선사관이다.

시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비교. 1차원[선], 2차원[면], 3차원[부피, 시간], 고차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며"(벧후 3:8),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며"(살전 4:15),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이며(계 2:10),

---

2:15,19-20]-안식(창 2:2-3, 15)-결혼(창 2:18, 20-25)의 문화제도 및 생명과와 선악과의 계명(창 2:16-17)을 포함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8) 창 1장은 우주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과 관련한다면, 2-3장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선택받은 자와의 내재를 말함에 '여호와'란 용어를 사용하여,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여호와 이심을 내레이터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를 확정하셨다면 꼭 마찬가지로 역사를 확정하신다.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 있기에 이스라엘 역사는 비극이 아니라 승리로 끝맺을 것을 확정한다.

9) 역사적으로 시내산언약은 '모압언약'(신5-28; 29:1[MT 28:69]의 "호렙에서 언약. . . 모압땅에서의 언약")과 세겜언약(수 22-24장)으로 갱신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송제근, 「시내산언약과 모압언약—출애굽기 19-24장과 신명기 5-28장 연구」 (서울: 솔로몬, 1998) 및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서울: 두란노, 2003)을 보라.

10) 성경의 심상에 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논의를 위해 Leland Ryken ed.,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Dowe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8) = 홍성희 등 공역, 「성경 이미지 사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을 보라.

11)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행 20:24)는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된다. 따라서 시공간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영원에 잇대어 순간에 살아가는"(찬송 53장 4절) 삶이 가능하다.

1.1. *베레쉬트*(בְּרֵאשִׁית)의 의미

구약에 6회 사용된 *베레쉬트*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은 여호야김(렘 26:1)과 시드기야(렘 27:1; 28:1; 49:34)의 즉위 연도 표기에 사용된 *베레쉬트 맘레쿠트*(מַמְלָכוּת[12] בְּרֵאשִׁית, "왕권의 시작에 있어서")란 숙어이다. 이것은 왕이 즉위한 후 그가 첫 새해를 맞아 그의 즉위 제 1년으로 공인되기 이전까지의 미확정된 통치 기간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서 유다왕국에도 적용된다.[13] 이 용법은 의미상당구인 수메르어 mu-sag('첫 해') nam-lugal-la('왕권의') 혹은 아카드어 *rēš šarrūti*에서도 그렇게 인정된다.[14] 만일 여호야김 시대의 새해가 봄철이었다면, 그의 *베레쉬트 맘레쿠트*는 주전 609년 8/9월에서 608년 3/4월 사이의 미확정된 기간을 가리키며,[15] 시드기야의 경우는 이 기간이 4년이었다(렘 28:1; 주전 597-593년).[16]

호세아 9:10의 *베레쉬타흐*(בְּרֵאשִׁיתָהּ, "그것[=무화과]의 첫 계절에")란 단어 역시 바로 그 앞의 *케빗쿠라 비트아나*(כְּבִכּוּרָה בְתְאֵנָה, "무화과나무에서 햇무화과처럼")와 연어(collocation) 관계에 있어서, *파그*(פֶּגֶ, 아 2:13), *빗쿠라*(בִּכּוּרָה, 사 28:4; 렘 24:2; 미 7:1; 나 3:12)라 부르는 햇 무화과(현대 팔레스타인 아랍들이 *탁쉬*[taqsh]라 부르는)를 생산하는 6월[17]의 미확정된 기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베레쉬트*는 "(하나님 은혜) 왕국의 시작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베레쉬트*를 절대형으로 이해하여 창세기 1:1이 2-3절에서부터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문장임을 지지한다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이나, 이 단어가 느헤미야 10:37의 경우처럼 정관사를 갖지 않은 연계형으로 보아,[18] 1절은 2-3절에 종속된 상황절로 이해하는[19] 진보주의 해석 모두 이 요점을 간과해온 셈이다.

우리의 해석은 신학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creatio ex nihilo*)한 입장을 고수한다. 따라서 창조의 첫 행위는 3절에서 시작된 첫날의 빛이 아니라 1절의 우주창조임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미확정된 통치기간"으로서의 우주창조와 현대 과학이 논의하는 우주와 지구의 연령과도 충돌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셈이다.

고대근동의 어떤 문헌에도 이런 표현으로 우주론을 시작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언제, 얼마동안 우주를 창조했는지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 셈이다.

1.2. *베레쉬트*(בְּרֵאשִׁית)의 대조어 *베아하리트*(בְּאַחֲרִית)의 신학적 의미

'시작'(רֵאשִׁית)이 미확정된 기간을 가리킨다면 그 대조어인 '종말'(אַחֲרִית)도 미래의 미확정된 기간으로서의 '후일'을 가리킨다.[20] 즉 계시의 '시작'(원시론, protology)은 그 계시의 '종말'(종말론,

---

12) מַמְלְכוּת(렘 26:1), מַמְלֶכֶת(렘 27:1; 28:1), מַלְכוּת(렘 49:34)의 3 형태를 취한다.

13) Simon J. De Vries, "Chronology of the Old Testament," *IDB* 1:586a, 587a.

14) "šarrūtu," *CAD* Š Part II (1992), 123, b).

15) William Holladay, *Jeremiah* v. 2 (Hermenia; Minneapolis: Fortress, 1989), 103.

16) 일본 왕의 공식 즉위가 약 1년 반에서 2년에 걸친 미확정된 세 가지 제의(*Sokui-rei, Senso, Daijo-sai*)로 구성됨을 참조하라.

17) 사 28:4의 בִּכּוּרָה בְּטֶרֶם קַיִץ("여름 이전의 햇무화과")란 표현과 마 21:18-22 = 막 11:12-14을 참조.

18) 즉 בָּרָא 동사의 부정사 연계형(בְּרֹא)으로 본문 수정을 시도한다. 혹자는 이사야 46:10, 느헤미야 12:44의 경우에서처럼 정관사 없이도 독립형으로 쓰일 수 있고, 비록 연계형일지라도 아카드어를 포함한 셈족어에서 바로 그 뒤에 얼마든지 정동사가 올 수 있으므로, 정동사 *바라*(בָּרָא)를 *베로*(בְּרֹא)로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 자세한 실례를 위하여, Edward J. Young, *Studies in Genesis O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4), 3, 각주 7을 보라.

19) 이에 따르면, 창조의 첫 행위는 1:3에서 시작되며, 결국 1:1-2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있었다"라는 상황절이 되는 셈이다. 참조. E. A. Speiser, *Genesis*, 3과 C. Westermann, *Genesis*, 1:94이하.

20) 예를 들면, 민 24:20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광야여정 어느 기간에 열방 중에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eschatology)을 예견하지만,[21] 창조의 시작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된 세계의 종말 역시 예수님마저도 알 수 없다(마 24:36). 하나님의 우주 역사에 두신 목적(창 1:31; 2:18; 시 104:31; 사 43:18; 요 1:13; 롬 11:36; 엡 1:5,11; 계 4:11)의 통일성을 인식함은 가능하지만,[22] 구원역사 속에 그 목적의 부분적 성취의 과정에 대한 시간, 방법, 장소 등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측불허"이다(사 55:8-9; 64:4; 고전 2:9; 롬 9:15-18):

사 46:9-10,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זְכֹר־רִאשֹׁנוֹת מֵעוֹלָם).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מַגִּיד מֵאַחֲרִית),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לֹא־נֶעֱשׂוּ) וּמִקֶּדֶם אֲשֶׁר)"

창 49:1,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אֲשֶׁר־יִקְרָא אֶתְכֶם בְּאַחֲרִית הַיָּמִים)"; 비교. 민 24:14; 신 31:28[23]

미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מוֹצָאֹתָיו)은 상고에(מִקֶּדֶם), 태초에(מִימוֹת עוֹלָם)니라"; 비교. 예수님의 탄생으로 종말이 시작됨—마2:6; 히1:1-2

계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ἐγὼ τὸ ἄλφα καὶ τὸ ὦ, ὁ πρώτος καὶ ὁ ἔσχατος, ἡ ἀρχὴ καὶ τὸ τέλος)

따라서, 과거 사건은 미래 사건의 예시적 기대요, 미래 사건은 과거 사건의 회고적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초두부터 소위 학자들이 "전략적(strategic)인 서술적 모형론(Narrative Typology)"이라 부르는[24] 본문들의 종말론적 이해가 요청된다.

1.3. 하나님 창조—인간 타락과 하나님 구속—하나님 완성의 창조사관과 그 중심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는 창세기 1-2장에서 우주 창조가 하나님 왕국의 심장부인 신전 건축 진행 과정으로 묘사되고, 에덴동산은 그 성전의 실례로 나타난다. 그 성전의 관리자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선지자-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왕국 건설에 관련된 노동-안식-결혼이란 문화적 제도가 소개된다.

인간 타락과 하나님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불순종하였던 인류 타락(죄-사망)의 기원과, 동시에 아담을 은혜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아오시고, "여자의 씨"로 오실 주 예수님을 중심한 구속 역사가 전개된다. 따라서 구약(창 3장-말 4장)은 사탄의 왕국 건설을 향한 인간의 전적 타락/부패/무능과 하나님의 은혜 왕국 건설을 향한 무조건적

을 공격했지만(출 17:8-13; 신 25:17) 훗날 반드시 멸절할 것임을 예언한다(참조, 신 25:18; 대상 4:43). 여호와의 눈이 세초에서 세말까지 가나안 땅 위에 있고(신 11:12),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욥 8:7; 비교. 42:12; 전 7:8; 사 46;10)는 모두 미확정된 기간의 시간을 가리킨다.

참조. 비슷한 표현 문구로서, "말일에"(בְּאַחֲרִית הַיָּמִים; 창 49:1, 민 24:14, 신 4:30, 신 31:29, 사 2:2, 렘 17:11, 렘 23:20, 렘 30:24, 렘 48:47, 렘 49:39, 겔 38:8, 겔 38:16, 단 10:14, 호 3:5, 암 4:2, 암 8:10, 미 4:1).

21) 이 주제를 위하여 Warren A. Gage, *The Gospel of Genesis: Studies in Protology and Esychatology* (Winona Lake: Eisenbrauns, 1984); 손석태 역, 「창세기의 복음」 (서울: 솔로몬, 1999)을 보라.

22) 예: 기상을 예보함과 니느웨의 종말론적 교훈(마 16:1-4), "노아의 때"와 같은 종말(창 6-9장, 마 24:3, 벧전 3:6-7, 바나바 6:13, "보라 내가 시작과 같이 끝을 내리라"), 및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질 것"을 예견하는 표현인 "땅이 있을 동안에는"(עֹד כָּל־יְמֵי הָאָרֶץ, 창 8:22; 비교. 벧후 3:10-13).

23) 세일해머, 「모세오경」, 87-91.

24) 전게서, 91-104. Gage는 시가의 병행법(Parallelism)과 마찬가지로 예언적 내러티브에서의 "역사적 병행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11쪽 각주7).

/제한적/불가항력적/영단번적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주역으로 긴장과 기대 속에 엮어간다. 신약(마 1장-계 20장)은 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세가 시작되고(히 1:2),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강림, 교회의 탄생과 "땅 끝까지"의 성장을 통하여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고"(고후 10:4), 마침내 사탄과 불신자들이 지옥 즉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계 20:10,15)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승리를 확신한다. 말세의 끝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는 인간타락과 하나님 구속의 양극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완성("영화, 재창조"라고도 부르는)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으로 묘사된다. 타락과 구속이 뒤엉킨 인류역사에서 쓰라리게 맛보던 것들—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해와 달, 밤, 등불; 눈물, 병, 사망, 애곡; 불신자, 불경건자, 불의한 자, 공포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개 같은 자, 거짓말쟁이; 속된 것, 가증한 일, 저주—은 다 없어지고, "태초에. . .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창 1:1,31) 창조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계 21:11,23)을 완성하는 것이다.

2. "그가 창조하시니라"(*빠라*, בָּרָא)

2.1. *빠라*(בָּרָא)의 의미

'태초에'와 "그가 창조하시니라"의 원어는 두운법(alliteration; '*베레...*'와 '*빠라*')이다. 구약에 48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빠라*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므로, 창조의 신학적인 의미는 말할 것도 없이 "무에서 유의 창조"(*creatio ex nihilo*; 마카비 하 7:28[25]); 참조: 요 1;3; 골 1:16; 롬 4:17; 히 11:3)이지만, 셈족 어원적 의미는 "잘라서 모양을 내다"[26] 라는 '완성적 동사'(telic verb)[27]이다.

고대근동의 동시대적 배경에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적 설계도면을 따라 시공하시는("잘라서 모양을 내시는") 고대근동의 왕궁/신전[28] 건축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노아의 방주(창 6:15-16), 모세의 성막(출 25:9,40), 솔로몬의 성전(대상 28:12,19),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학 1:8; 슥 4:9,10)과 관련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겔 40:4) 모두가 각각 시공 이전에 하나님이 손수 계획하신

---

25) "무에서 유의 창조"의 최초 언급인 마카비 하 7:28의 원문과 직역은 다음과 같다: avxiw/ se te,knon avnable,yanta eivj to.n ouvrano.n kai. th.n gh/n kai. ta. evn auvtoi/j pa,nta ivdo,nta gnw/nai o[ti ouvk evx o;ntwn evpoi,hsen auvta. o` qeo,j kai. to. tw/n avnqrw,pwn ge,noj ou[tw gi,netai, "내 아들아, 내가 네게 권하노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존재하지 않는것들에서 만드시고**, 사람들의 후손도 이와 같이 존재된 것을 보고 알라."

26) 성경히브리어 최고 권위의 자전인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ieden: Brill, 2001), 153-4에서 **ארב**를 동음이의어적(homonymic) 어원으로 나누어 각각 Qal, "to create"와 Pi'el, "to shape by cutting"(예: 수 17:15,18; 겔 21:19[24]; 23:47; 민 16:30의 "새 일을 행하사"[원문, *베리아 이브라*, בְּרִיאָה יִבְרָא, 즉 "창조를 창조하다"]는 31절의 "갈라지니라"[בָּקַע]와 연결하여 "자름을 자르다"로 직역이 가능함)으로 구분한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R. C. Van Leeuwen, "**ארב**"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1 (ed. W. A.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728-35를 보라.

27) 즉 창조 행위의 시작이나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완성된 창조 행위를 가리킨다(비교. 신 4:32; 시 89:12; 사 40:26; 암 4:13).

28) 성경히브리어 בַּיִת, '집'은 '왕궁'(창 12:15), '신전'(창 28:22)의 의미를 가지며, 수메르어 é-gal, '큰 집'이 악카드어 ekallu, '왕궁'과 성경히브리어 הֵיכָל, '성전'으로 차용되었다. 고대근동의 왕궁과 신전이 인접한 사실은 (비교: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하나님이 신으로 이해되거나 왕으로 이해되는 양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설계도면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참조: 히 11:10[29]; 계 21:2).

따라서, 창세기 1:1-2:3의 문예-신학적 구조는 모두 창조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왕궁/신전 건축의 왕적인 설계(계획)—시공(질서)—감리(조화)의 주체로 인식되는 하나님의 심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30]

(1) 선언("하나님이 가라사대", וַיֹּאמֶר): 건축의지가 담긴 설계에 따른 "성령님과 말씀"(1:2, 3; 참조. 시 33:6; 요 1:3; 20:22; 히 11:3; 벧후 3:5)에 의한 시공

(2) 명령(". . . 있으라[יְהִי]를 중심한 다양한 명령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

(3) 분리(나뉘게 하라(וַיַּבְדֵּל[1:4, 7]; וַיְהִי מַבְדִּילִי[1:6]; לְהַבְדִּיל[1:14, 18]): 영역분리(낮과 밤, 물과 뭍, 물고기와 새)와 경계선/질서의 확립종류대로"(명령—분리, 건축 진행)[31]

(4) 결과("그대로 되니라"): 말씀-사건의 완성,[32] 명칭을 주심("칭하시니라"),[33] '번식'의 복을 주심(창 1:22, 28).[34]

(5) 평가: 부분 사용 검사필증("보시기에 좋았더라"); 완공—사용 검사필증("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이루니라")[35]

(6) 시간표[36]—"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건축 진행일지);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입주—

---

29) 히 11:10의 원문과 직역은 다음과 같다: evxede,ceto ga.r th.n tou.j qemeli,ouj e;cousan po,lin h—j tecni,thj kai. dhmiourgo.j o` qeo,j. 이는 그가 기초들을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의 설계사와건축사는 하나님이시다.

30) 하나님과 우주창조를 설계, 건축, 완공의 시각으로 해석해 온 유대교의 "미드라쉬 랍바"(Midrash Rabbah)에 대하여 Wilfred Shuchat, *The Creation according to the Midrash Rabbah* (New York: Devora, 2002), 23-27을 보라.

31) 분리는 창조와 이스라엘의 실존에 근본적인 개념이다(창 3:15; 12:1; fp 20:24-25; 민 8:14).

32) 히브리어 '*다바르*'[דָּבָר]는 '말씀'과 '사건'이란 이중 의미가 있다; 비교: 사 40:26; 44:24-28; 48:13; 50:2; 55:11; 렘 36:1-7[주전 609년가을; 7:1-7 참조]; 20-26, 27-32[주전 601년 가을]; 겔 37:4; 시 33:6, 9; 104:7; 147:4, 15-18; 148:3-5; 요 1:14; 고후 1:20; 딤후 2:9; 참조 롬 4:17; 골 1:15-17; 히 11:3; 벧후 3:5.

33)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일(창 1:3-5; 2:18-25)은 왕적 통치를 보여준다(참조. 민 32:38; 왕하 23:34; 24:17).

34) 창세기에 "복"이란 단어의 연계어(collocations)들에서 '팽창'이 '복'의 특성임이 분명 해진다: ①생육(*파라*, פָּרָה; 1:22, 28; 9:1; 17:20; 26:24; 28:3; 31:11; 48:4), 번성(*라바*, רָבָה; 1:22, 28; 9:1; 17:20; 22:17; 24:60; 26:4; 28:3; 30:30; 31:11; 48:4, 16), 충만(*말레*, מָלֵא; 1:22, 28; 9:1;), 창성(*가돌*, גָּדוֹל; 12:3; 18:18; 24:35; 특히 26:13에 3회 사용), 강성(*아쭘*, עָצוּם; 18:18;), 백 배(*메아 쉐아림*; 26:12), 민족/열방들의 무리(*케할 암밈/고임*; 28:3; 35:11; 48:4), 편만(*파라쯔*; 28:14; 30:30), 행운(*가드 < 가다드*[?], "짜르다"; 30:11), 증식(*다가*; 48:16); ②정복(*카바쉬*, כָּבַשׁ; 1:28), 지배(*라다*, רָדָה; 1:28), 소유(22:17; 28:4), 복종(*아바드*; 27:29), 굴복(*하와*; 27:29), 기업(*아훗자*; 48:4).

35) 아카드어 *ṣubb*û는 감리와 건축에 대해, *šuteṣb*û는 설계에 따른 실행에 대해 사용되는 건축 용어이다. 에를 들면 *bītam aḫīṭ alaktašu uštassiqma*, "그 신전은 내가 조사했고, 그 법령은 내가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Takil-ilissu of Malgium 비문; R. Kutcher and C. Wilcke, "Eine Ziegel-Inschrift des Königs Takil-ilissu von Malgium, gefunden in Isin und Yale", ZA 68 (1978): 95-128의 115쪽 48-49행). 흥미로운 것은 아카드어 *amāru*와 *ṣubb*û가 인간창조 신화에도 나타난다(W. R. Mayer, "Ein Mythos von der Erschaffung des Menschen und des Königs", *Or* ns 56 [1987], 24', 25', 26', 35'행)

36) 고도의 문예성이 창조의 역사성과 공교하게 맞물려있는 창 1장의 창조기사에서 7일이 연대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1세기 Rashi가 이미 지적한 대로 창 1장의 비연대적 배열의 증거가 보인다. 창 1:1-2:3과 2:4-25의 두 창조기사를 비교하여 에덴동산의 각종 과실나무가 제3일에 창조되었다면 제6일에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모든 과실이 맺혀 있은 셈이나 2:9은 분명하게

안식).

출애굽기 본문의 36.7%에 해당되는 성막 건립에 대한 기록은(출애굽기 총 1213구절 중에서 457구절에 해당) 창세기 1-2장의 창조 기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 주므로,[37] 창1-2장의 우주 창조는 고대 근동의 왕궁/신전의 건축—설계, 진행과 완공—의 표상(imagery)으로 묘사되며, 출애굽기 25-31장의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요(출 25:9, 40; 비교: 대상 28:11-12; 18-19; 히 11:10) 성령님에 의해 진행, 완공된 천국(우주) 창조의 모형과 그림자로 묘사되어(히 8:5) 성경 해석학적으로 두 본문 이해에 상승(相乘, synergism) 작용을 하고 있다.

2.2.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중심부인 왕궁이나 신전

우주는 곧 하나님의 왕궁/성전/왕국이요, 그 우주의 신학적인 중심지인 지구 역시 하나님의 왕궁/성전/왕국이요, 지구의 신학적 중심지인 에덴동산이 또한 하나님의 왕궁/성전/왕국이다. 따라서 신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왕국"이 모세오경과 구약 전체의 일관성 있는 주제임을 상정할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수도가 그 국가의 상징이요, 수도함락이 곧 국가패망으로 인식되듯이, 고대근동 역시 왕궁(신전)이 왕국의 중심부요, 특별히 그 신전파괴가 왕국멸망으로 인식된다. 고대근동에 널리 알려진 애가문학과 예루살렘(애 1-5장), 두로(겔 26:17; 27:2,32; 28:12), 애급(겔 32:2,16)에 대한 애가는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38] 따라서, 왕궁(신전)으로서의 우주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나게(צָמַח) 하시니"로 밝히므로, 3일 만에 모든 열매가 다 맺혔다고 해석함은 부자연스럽다. 또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2:19) 역시 아담이 지음 받은 당일, 그것도 낮 동안에 이렇게 했다고 해석함은 부자연스럽다. 첫째 날에 저녁과 아침을 지으셨으나(1:5), 제4일에야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지으셨다(1:14). 첫 5일의 '날'에는 정관사가 없으므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진술보다는 고대근동의 신화와 이방종교를 경책하는 신학적인 강조가 더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간모습으로 묘사하는 창조의 '은유적'(metaphorical) 표현은 창조의 역사성을 보다 문예적 기교를 통해 신학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37) 첫째, 창1장의 창조 기사가 7번의 연속 과정을 "하나님이 가라사대"(*바요메르 엘로힘*, וַיֹּאמֶר אֱלֹהִים; 1:3, 6, 9, 14, 20, 24, 26; 참조: 11, 28, 29)로 시작하듯이 성막 건립도 7번의 연속 과정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바예다베르 아도나이*, וַיְדַבֵּר יהוה; 출 25:1; 30:11, 17, 22, 34[*바요메르 아도나이*, יהוה וַיֹּאמֶר]; 31:1, 12[*바요메르 아도나이*, וַיֹּאמֶר יהוה]로 시작한다. 둘째, 창 2장의 에덴동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성막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①"베델리엄"(*뻬돌라흐*, בְּדֹלַח; 창 2:12상; 성막 재료용 순금—출 25:3); ②"호마노"(*쇼함*, שֹׁהַם; 창 2:12하; 성막 재료용—출 25:7); ③"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창 2:10-14; 성소 안의 영적 강—시 46:5; 겔 47장); ④"생명나무"(창 2:9; 등대—출 25:31-35); ⑤"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창 2:9; 율법—시 19:8-9); ⑥"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아바드... *솨마르*, עָבַד . . . שָׁמַר; 창 2:15; 성막에서 레위인의 직무—민 3:7-8); ⑦"(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히트할레흐*, הִתְהַלֵּךְ; 창 3:8; 성막에 거니시는 하나님—레 26:12; 삼하 7:6-7); ⑧"(가죽)옷"(*케토네트*, כְּתֹנֶת; 창 3:21; 제사장 겉옷—출 28:4); ⑨"(에덴동산) 동편에"(*믹케뎀*, מִקֶּדֶם; 창 3:24; 성막/성전의 출입구—민 3:38; 겔 8:16); ⑩"그룹들"(*케루빔*, כְּרֻבִים; 창 3:24; 성막 지성소 속죄소와 휘장에 존재—출 25:18-22; 26:1); ⑪"화염검"(창 3:24; 민 1:51, 53). 셋째, 창조와 성막 건립에는 준공 검사(창 1:31; 출 39:43상)와 축복이 뒤따른다(창 1:28; 출 39:43하). 넷째, 창조와 성막 건립 후 성별되고 복된 안식일로 끝맺는다(창 2:1-3; 출 31:12-18). 다섯째, 창조 완성 후와 성막 건립 명령의 완결 후 하나님의 언약에 각각 불순종한 결과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도 불구하고(창 3장; 출 32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회복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된다(창 3:15, 21-24; 출 33-34장). 출 19장과 24장의 시내산도 창조기사와 결부하여 성막의 원형으로 이해된다(참조. 세일해머, 상권:296-98; 하권:137-140).

38)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진 장르로서의 왕국 멸망의 애가들 (lamentations)에 대하여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9), 160-63; W. Gwaltney, "The Biblical Book of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신국) 건설인 셈이다. 이 왕국(신국)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모든 거짓 신들 위의 유일신)이시요, 주권적으로 창조-보존-심판하시는 은혜왕국이기에, 왕궁(신전)으로서의 우주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적(신적) 임재와 영광을 찬양한다.

우주창조는 진화론자들의 발상대로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니며, 고대근동에 편만했던 창조신화들의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에 의한 각색도 결코 아니며, 모든 피조물은 망원경적 존재에서부터 현미경적 존재에 이르기까지 설계(지)-시공(의)-감리의 만족(정)에서 보여주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무한(=영원-무소부재-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신성을 시위하는"(롬 1:20) 하나님의 걸작품이다(시 9:3; 엡 2:10).

3. "하나님이" (*엘로힘*, אֱלֹהִים)

3.1. 창조주 하나님

히브리어 동사는 주어와 시제가 한 단어에 표현되므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바로 동사 *빠라* 뒤에 놓아 창조의 주체인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창세기와 함께 구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러티브, 즉 이야기체의 본문에서 그 주인공은 단연 하나님이시다(예: 수 10:10의 원문에는 한글개역의 '여호수아가' 없음[39];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는 여호수아 24:2-13에서 "내가/나는"을 주어로 하는 모든 동사들).

자존(출 3:14)과 자족(행 17:24-25)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연성은 전혀 없다. 다만 그분이 기뻐하시고(엡 1:5) 원하시는(엡 1:11) 뜻대로(계 4:11) 창조하셨다. 따라서 피조물 자체에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가 결코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란 목적아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존재한다(시 19:1; 29:9; 104:31,33).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창조/중생), 주로 말미암고(보존/성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심판/영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6)이란 영광송(doxology) 역시 창조—타락과 구속—완성의 역사 주체이신 은혜의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출 33:19; 롬 9:18) 주권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적(anacoluthon; 파격적 문장—롬 1:25; 9:5; 11:36; 16:27; 갈 1:4; 빌 4:20; 엡 3:14-15; 살전 1:3; 3:11,13; 딤후 4:18; 벧전 4:11) 찬양이다.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of God) 교리는 개혁신학의 강조점이다. 진보주의 신학사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항목이 없으나, 개혁신학 사전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전 11:4-6),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마 19:26),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롬 4:17)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진다.

3.2. *엘로힘*(אֱלֹהִים)의 의미

'하나님'이란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אֱלֹהִים)은 *엘로아흐*(אֱלוֹהַּ)란 단어의 복수형으로서, 이방 신들을 가리킬 때는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지만(시 97:7), 성경의 하나님일 경우에는 항상 단수 동사를 사용한다. 이것은 신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예: 마3:16-17; 28:19)의 삼위(복수) 일체(단수)를 시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1:1-3에서 "하나님-가라사대(비교: 시 33:6,9; 요 1:1, "말씀")-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다.

Lamentations in the Context of Near Eastern Literature" in *Scripture in Context II*, ed. W. Hallo, J. Moyer, and L. Perdue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3), 191-211 및 P. W. Ferris, Jr., *The Communal Lament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2)를 참조하라.

39)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면전에서 혼란케 하고,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쳐죽이고, 벧 호론의 오르막 길목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쳐죽이니라."

4. "천지를"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쯔*,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4.1.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상인 "천지"의 의미

원어적으로는 이분법적 유의어(merism; hendiadys)인 "그 하늘들과 그 땅"이다. 수메르어의 *안-키*(an-ki), 아카드어의 *샤무-우-에르쩨투*(šamû *u erṣetu*) 등의 실례에서 보는 것처럼 고대근동 여러 언어에서 천지는 우주를 가리키는 숙어이다(창 2:1,4; 시 121:1; 렘 51:48; 마 5:18).

성경에서 우주를 표현하는 다양한 삼분법적 문구는 이 사실을 더욱 확증 한다: "하늘들과 땅과[40]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출 20:11; 시 146:6; 행 4:24; 14:15);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느 9:6);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계 10:6);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학 2:6);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것의 충만한 것"(시 96:11);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들 가운데 기는 모든 것"(시 69:35);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땅 아래 물속"(출 20:4; 신 5:8; 빌 2:10; 계 5:3,13);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데"(시 135:6; 계 14:7); "그 모든 것"(시 103:19; 119:91; 전 11:5; 렘 10:16 = 51:19; 요 1:3; 행 17:24; 골 1:16; 히 11:3; 계 4:11).

4.2. 정령적 다신론인 고대근동의 문화-종교를 경책(警責)함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수메르의 신관을 예로 들면 하늘이란 뜻의 으뜸 신 An과 땅이란 뜻의 그의 아내 Ki (혹은 Uraš)로부터 여러 신들이 출생하고, 따라서 우주는 "An의 하늘, 중간 하늘들, 창공, 지면, Abzu(지하수), 지하계"의 6층과 각 영역을 지배하는 자연신들로 구성되므로,[41]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 나타난 피조물들, 즉 하늘과 그에 속한 해, 달, 별, 궁창, 새 등이나, 땅과 그에 속한 풀, 채소, 과목, 육축, 짐승, 땅에 기는 것이나, 바다와 그에 속한 깊음, 물고기 등이 신의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절대로 신적인 숭배의 대상이 아니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독

---

40) 여기서 "하늘"이란 흙에서 지음 받은 인간의 지배력(창 1:28-30)이 미칠 수 없는 피조물의 일부를 의미한다. 태양, 달, 별들이 창 1:28-30의 목록에 빠진 것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 "하늘"은 공간적 "위" 보다는 "비 근접성"의 의미가 강조된다. 영어 cosmos(우주)는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키므로 "세상"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하늘"의 새(창 1:20, 28, 30)는 땅으로도 내려와 인간과 접촉될 수 있기에 "공중"의 새로 이해된다. "새들이 살게 되어 있는 영역은 땅이지 궁창이 아니라고 말해 진다"라는 Edward J. Young의 제언에 대하여 그의 *Studies in Genesis O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4), 72를 보라.

"하늘"이나 "군대"(*짜바*, צָבָא)란 용어가 천사와 별들에 함께 사용되므로(느 9:6; 시 50:4; 89:5-7, 11; 148:1-2; 사 24:21; 막 13:27; 빌 2:9-11; 계 5:3) 하늘과 우주를 구별함에 모호성이 있다. 하늘에 거하는 천사(창 3:24; 비교. 시 148:2-4; 마 18:10)의 창조는 창 1:1, 7-8, 14-18의 어디에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최소한 창 1:1-31의 어떤 시간이며, 마귀와 그 추종 천사들의 타락(계 12:9 참조) 역시 창 3:1 이전임은 확실하다. 우리는 여기서 창 1:2에서 마귀의 타락을 추정하여 1:3이 재창조를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갭(gap) 이론을 수용할 수 없다. 창 1장에 천사의 창조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피조물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는 것이지 모든 피조물의 구체적인 종류를 목록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나, 인간의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피조물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본문들을 근거로 우리가 받아드리기 곤란한 다른 항성에도 인격적 피조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James Reid에 대하여 그의 책 *God, the Atom, and the Universe* (Grand Rapids: Zondervan, 1968), 210이하를 참조.

41)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Horowitz, Wayne. *Mesopotamian Cosmic Geography* (Mesopotamian Civilizations 8; Winona Lake: Eisenbrauns, 1998)를 보라.

특한 위치와 사명자임을 명시하여(시 8:4-6; 롬 1:23, 25),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우상적 문화와 종교의 허구성을 경책하며, 동시에 참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선교적 소명과 사명을 촉구한다.

역사적으로, 주전 1400년 경 모세가 기록할 당시의 애굽의 "아텐[Aten}의 찬양시"(주전 1350년경)에 대한 문화종교경책적인 요소를 보여준다.[42] 창조기사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기초를 제공한다. "왜 다른 신은 안 되는가?"(출 20:3)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창 1:1). "왜 살인할 수 없는가?"(출 20:13)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창 1:26-28).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출 20:8-11)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창 2:2-3).[43]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고(창 1:2), 동일하신 그 성령님께서 홍해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다(출 15:8-10). 우주창조에 보여 주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창조와 이를 위한 출애굽에 이제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이 창조기사는 인류는 아담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애굽을 포함하여 세계 열방위에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이스라엘에게 교훈하는 기초적인 기록이다(출 19:4-6)

4.3.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고대근동의 정령적 다신론의 문화종교경책학적 고찰

		Sumer	**Akkad**	**Egypt** (Memphite)	**Hittite**	**Canaan** (Ugarit)
1:1	하늘	An	Anu	Nat		El
	땅	Ki/**Enki**	Ea	Šu		Kotar
1:2	깊음		Tiamat			
	영(=바람)	**Enlil**	Ellil			
	번개	**Ninurta**		Seth	Tešub	Ba'al Haddu (왕상16:31; 18:18-46)
	폭풍	Iškur	Adad(시리아)/Marduk(렘 50:2)/Aššur/Bel(사46:1; 렘51:44)			
	물	Enki	Ea			
1:10	바다	(Abzu)	Apsu			Yamm
1:11	풀	Dumuzi (겔8:14)	Tammuz	Osiris		

42) 아텐(혹은 Aton)은 태양신으로서 태양 모양의 원반에 햇살모양의 갈고리 손들이 여러개 나와있는 형상이다. 그를 숭배하는 일은 Akhenaten("아텐의 영광"이란 뜻)이라 개명한 Amenhotep IV(주전 1372-1355)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아텐 숭배의 기원은 불확실하며 Heliopolis 근처의 지방 태양신으로 출발했다. 따라서 그 당시까지 태양신으로 군림하던 Amen-Ra의 제사장들은 심한 반발을 일으키므로 Amenhotep은 그의 수도를 Thebes에서 새롭게 건축한 Tell el-Amarna로 옮긴다. 그는 15년 정도의 통치후에 그의 아내 Nefertiti와 함께 갑작스런 임종을 맞으며, 아마도 Amen-Ra제사장들에게 피살된 듯하다. 그가 남긴 아텐 찬양시의 시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당신의 떠오름은 하늘 지평선에 아름답고,
> 오 아텐 당신, 태고적부터 존재하셨고,
> 당신이 동쪽 지평선에 떠오를 때면 모든 땅을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채우나이다.
> 당신은 보기에 아름답고, 위대하며, 수정같고, 땅위에 높이 계십니다.
> 당신의 빛살은 땅, 당신이 지으신 땅을 품으며,
> 당신은 라(Ra)와 같아서 (당신 자신을) 각 땅에 보내어,
>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묶습니다.
> 당신은 멀리 계시나 당신의 빛살은 온 땅위에 있습니다.

43) B. K. Waltke, "The Literary Genre of Genesis, Chapter One," *Crux* 27 (1991) 3.

1:16	해	**Utu**	Šamaš	Ra, Horus	Arinna	ʿAnat
	달	**Nanna/Zuen**[44]	**Sîn**	Thoth		
1:26	바다고기	Nanše	Tiamat	Nun		
1:27	공중의새	Anzu	Anzu	Horus	[참조: 창1:2 "운행" (독수리)]	
1:29	채소,	Ašnan	Dagan		Dagon (삿16:23; 곡식, 삼상5:2-7)	
1:28	생육	**Ninḫursag**/ Ninmaḫ/Nintu	Aruru	Hathor	Nephthys	Ašerah
	번식	**Inanna**	Ištar	Isis	Hannahanna	ʿAštarte(Astoreth)

---

44) 종교적으로 수메르 남쪽 우르(Ur)와 북쪽 하란(Harran)은 구 바빌론 시대부터 수메르의 일곱 주요 신의 하나인 월신 Nanna/Suen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Mari의 Zimrilim왕(주전 1730-1700년경 통치) 때 이미 언급되고 있으며, 그 신전 이름이 수메르어 é-ḫûl-ḫûl=아카드어 *šubat ḫidâti*, "환희의 집"이었음이 비문을 통해 알려졌다. 월신 Suen은 만월일 경우 Nanna로, 신월일 경우 Suen으로 불리웠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창11:28, 31, 15:17, 느 9:7)를 Woolley경이 발굴했던(1922-34) 남쪽 Ur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서, Ugarit 문서에 나타났던 Hittite 도시 Ur^{a}와 관련하여 하란의 (북)동쪽에 이 "갈대아" 우르(사실 남쪽 우르가 "갈대아" 우르로 불려진 어떤 문헌도 없다)가 있다고 Gordon이 1958년 처음 제안한 이래, 이제 최근의 Ebla 토판에서 "하란에 있는 우르"를 언급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월신 난나/주엔의 열광적 우상 숭배 가문이었다(창 31:30; 신 26:5; 수 24:2; 사 51:1-2; 히 11:8).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족보(창 11:27-32) 속에 월신 숭배의 흔적을 엿볼 수 있으니, "*데라*"(*teraḥ*)는 어원적으로 달(*yārēaḥ*)과 관련될 수 있고, "사래"('여왕'이란 뜻)의 수메르 동등어는 *닌갈*[*nin-gal*]인 바, 바로 난나/주엔의 아내 이름이요, "*밀가*"[*milkâ*, "여왕"]는 난나/주엔의 딸 "*말카투*"[*malkatu*]와 동등어이며, "*라반*"[*lābān*, "흰"]은 보름달의 시어(詩語)인 *레바나*[*lᵉbānâ*]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주신인 난나/주엔 월신 연구에 대한 결정판인 Mark Hall, *A Study of the Sumerian Moon-god, Nanna/Suen* (Ph. 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은 아래와 같은 결론적인 요약을 제공한다(592-97쪽).

난나/주엔은 남신(男神)으로서 두가지 특징적인 면을 지닌다: ①천상적으로는, 밤하늘의 유일한 빛 공급원으로서 월력 시간표의 중심이요, 태음 월말에 달이 하늘에서 사라진 후 지하계에서 운명(수메르어 *nam-tar*) 결정신이며, ②목축적으로는, 송아지로 구현되어 가축의 번식과 그 식품(우유, 치즈 등)을 공급하는 신에서 더 나아가 곡식, 채소, 야생(강, 공중, 시골), 인간 번식의 신이다. 이 "번식"의 표상을 갖게 된 이유는 달이 주기적으로 초승달, 보름달, 그믐달을 반복하는 모습이 대(代)가 끊어지지 않고 생장(生長)하는 번식의 능력으로 이해되었고, 이 능력을 모든 생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메르 최고 부부신인 엔릴(Enlil; "바람 군주"란 뜻)과 닌릴(Ninlil; "바람 여왕")의 아들로서 "소를 치는 자"로 묘사되는 것도 가축을 키우며 그 생산품으로 부모를 섬기는 효자를 연상하기 때문이며, 새해마다 니푸르(Nippur; 수메르의 예루살렘격으로 에스겔이 포로 생활한 델아빕[겔3:15]이 그 근교이다)에 거주하는 엔릴에게 초실제(初實祭)를 드리기 위해 여행했다. "신들의 여행"(divine journey)에 대하여 알려진 7개의 주요 수메르 문헌들에 대해서는 A. J. Ferrara, *Nanna's Journey to Nippur* (Studia Pohl SM 2;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3)와 A.-H. A. al-Fouadi, *Enki's Journey to Nippur, The Journeys of the Gods* (Ph. 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9) 및 H. Sauren, "Besuchsfahrten der Götter in Sumer," *Orientalia* NS 38 (1969), 214-36을 참조하라.

그는 하란과 우르의 주신으로서 그 도시의 "아버지(a-a), 군주(lugal, en), 영웅적 수호자(ur-sag), 왕자(nun)로 불려졌고, 매일 조반(kin-nim)과 저녁식사(kin-sig)외에 달의 모양이 바뀌는 주요 시기마다 매월 *에쉬에쉬*($eš_3$-$eš_3$) 절기 때에 특별한 헌물을 드렸다. 특별히 아카드제국의 시조인 사르곤(Sargon, 주전 2371-2316)왕의 딸 엔헤두안나(Enheduanna, 주전 2334-2279년; 비교: 아브라함[주전 2166-1991년])가 그때까지 알려진 신전 찬양시(temple hymns) 42개를 집대성하여 현세에 남겼고, 우르의 난나 월신의 대 여제사장(en)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이난나(Inanna) 여신에게 남겼다. Å. Sjöberg and E. Bergmann, *The Collection of the Sumerian Temple Hymns* (Texts from Cuneiform Sources 3. New York: J. J. Augustin Publisher, 1969)를 참조하라.

(삿2:13; 10:6; 삼상12:10; 왕상11:5)
하늘황후 (렘7:18; 44:17-25)

비교: 무덤	Ereškigal	Nergal	Osiris	Mot
갈대-기록	Nidaba	Nabu	Thoth	Molech (Malkam Milcom)
		(사46:1)		(습1:5; 렘49: 왕상11:5,7,33)

4.4. 창조주 하나님의 왕궁/성전인 우주(시 11:4; 29:9; 139:6-12)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사 66:1 = 행 7:49; 마 5:34-35). 구약의 우주론은 창조를 하나님이 치신 성막이나(비교: 시 104; 욥 9:8; 사 40:22), 하나님이 세우신 집으로(기둥들, 창문들, 문들을 가진; 욥 26:11; 창 7:11; 삼상 2:8; 시 24:1-2; 78:23) 묘사하기를 즐긴다. 따라서 에덴은 성소의 소우주적 표현이다. 하나님은 우주창조를 설계하시며 시공하셨고, 보존하시며 섭리하시는(시 113:6; 119:91; 135:6; 146:6) "천지의 주재"이시므로(창 14:19,22; 마 11:25; 행 17:24), 하나님의 성전인 우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민 14:21; 시 69:34; 72:19; 104:1-3; 사 48:13; 55:12; 합 2:20) 경배하며(느 9:6; 롬 8:19-21; 계 5:13), 천지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적 삶의 심판대에 증인으로 등장한다(신 4:26; 32:1; 사 1:2; 미 6:2; 시 50:4).

이것이 광야에 유숙하던 77세의 노총각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체험한 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 외치며 "두렵도다 이곳이여. . . 이는 '하나님의 전'(=벧엘)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창 28:16-17) 고백한 실체이다. 이것이 호렙산에 섰던 80세의 노익장 모세와 여리고 성 근처에서 70세 가량의 노익장 여호수아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수 5:15) 말씀하시는 실체이다. 이것이 제임스 어윈 대령이 1971년 7월 말 아폴로 11호를 타고 3일 18시간 체류한 달에서 시편 8편을 암송하며 지구를 바라보면서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실체이다. 화장실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인식하면서, 바로 그곳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우주를 품은 그리스도인"(universe-Christian; 고전 3:21-23)의 삶을 만끽할 것이다.

5. 성령님과 우주창조

5.1. 우주창조의 상황

창세기 1:1은 고대근동의 어떤 창조내러티브도 갖지 않은 독립절로서 우주창조(창1:1-2:3)와 신구약 성경의 서론적 명제와 요약이다. 창조의 구체적 사역을 소개하는 1:3에 선행하는 2절은 창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창조의 신학적 의미는 "무에서 유의 창조"이지만, 셈족의 창조(בָּרָא)란 단어의 의미와 히브리어 본문이 묘사하는 우주창조는 고대 신전 건축의 설계도면을 따라 "잘라서 만든 구체적 모양"으로서의 창조를 이해한다. 따라서 2절에서 구체적 형체를 갖지 않은 땅(3째날 창조된 땅 대조, 1:10), 어둠(1째날 창조된 어둠 대조, 1:4-5), 깊은 물(대조, 2째날 창조된 물[1:6-7]과 3째날 창조된 물[1:9-10])은 셈족의 이해로는 비존재로 간주함이 마치 양복점에 아직 잘라서 양복을 만들지 않은 상태의 세워둔 재단용 옷감이 비존재인 것과 같다.

5.1.1. "땅은 모양이 없고 비었으며"(*뻬하아레쯔 하예타 토후 바보후*, וְהָאָרֶץ הָיְתָה תֹוהוּ וָבֹוהוּ)

구약에 20회 사용되는 *토후*(한글개역의 '혼돈'이란 번역은 혼돈스러운 것임을 유의하라)란 명사의 기본적 뜻은 "생산력이 없는 황무지"(신 32:10)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땅의 창조무효화(uncreation) 즉 창조(건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이나(사 24:10; 45:18; 비교: 창 6-8장의 노아 홍수), 비존재의 황폐한 상태(사 40:17,23; 41:29; 49:4), 즉 생명이 없어 모양이 없는(생명은 모양을 지닌다) 상태를 보여준다.

구약에 3회 사용된 *보후*('공허')란 명사의 기본적인 뜻은 천막이나 집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없는 텅 빔"으로서, 항상 *토후*와 두운법(alliteration, 즉, '*오후*'란 발음) 쌍으로 사용되며(사 34:11; 렘 4:23), 역시 창조무효화의 의미를 가진다(렘 4:23-26). 따라서 6일 창조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3인조(triads)의 점진적 창조로 이해할 수 있다.[45]

	모양(근원; *토후* 해결)		채움(활용; *보후* 해결)
날	'정적'	날	'동적'
1	빛(1:3-5)	4	발광체(1:14-19)
2	궁창	5	거주자(1:20-23)
	하늘		새
	바다		물고기
3	육지(1:9-10)	6	육지동물(1:24-25)
	초목(1:11-13)		인간(1:26-31)

첫 3인조는 모양이 없는 상태에서 3가지 정적 영역을 나누며, 둘째 3인조는 생명의 거주지와 안식처가 되는 영역으로서 해, 달, 생물의 동적 형태로 채워진다. 둘째 3인조는 그 상응하는 영역을 지배하여 해와 달은 흑암을(시 136:7-9),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땅을 각각 지배한다(그렇다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새와 물고기도 각각 바다와 하늘을 지배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각 3인조는 하늘에서 땅으로 발전하며, 땅이 무엇을 내는 것으로 끝맺는다. 첫 3인조는 땅이 초목을 내며 둘째 3인조는 땅이 동물을 낸다. 각 3인조 안에 창조행위의 수는 단 하나에서(날 1과 4) 두 국면을 가진 하나를 통해(날 2와 5) 두 구별된 창조행위로(날 3과 6) 증가 된다.

창조기사에 활동 역시 상승된다. 첫 3인조에서는 빛에서 어둠으로, 궁창과 바다에서 자라는 초목으로의 단순한 동작이 있다면, 둘째 3인조는 동역학적(kinetic) 에너지의 분출이 있다. 해와 달은 하늘을 가로 지르며(시 19:5-6), 새와 물고기는 공중과 바다에서 떼 지으며, 육지동물은 땅을 가로질러 배회한다. 둘째 3인조의 활동 유형은 점진적으로서, 발광체는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유형을 따르며, 동물은 이주와 거주의 본능적 유형에 예속된 제한된 수준의 자유를 가지고 여행하며, 인간은 단지 땅 지체에 제한을 받지만 최대의 자유를 누린다.

창조기사는 한 주간 구조로 통일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조화와 균형을 확증한다.

5.1.2. 창1-2장에 나타난 가나안 바알 신에 대한 문화종교경책학적 고찰[46]

1. 봉투구조(inclusio): 1:1-2 과 2:1-3
2. 6일간 창조에 8장면 (1+1+2 유형)
   * 첫째 (가라사대 : 빛)
   * 둘째 (가라사대 : 물들, 하늘)
   * 셋째 (가라사대 : 마른땅)
     (가라사대 : 채소)
   넷째 (가라사대 : 빛들)
   다섯째 (가라사대 : 고기, 새들)
   여섯째 (가라사대 : 짐승)
   (가라사대 : 인간)
3. 2:5-7의 논제

45) B. K. Waltke, "The Creation Account in Genesis 1:1-3, Part 5: The Theology of Genesis 1," *BibSac* 133 (1976) 29; 동일저자의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57-58.

46) 자세한 논의는 Mark D. Futato, "Because It Had Rained: A Study of Gen. 2:5-7 with Implications for Gen. 2:4-25 and Gen. 1:1-2:3,"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0:1 (spring 1998): 1-22; Jack Collins, "Discourse Analysis and the Interpretation of Gen. 2:4-7,"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1:2 (fall 1999): 269-76을 보라.

*2중 문제(5a):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작물(שִׂיחַ)이 나지 아니하였으며"

*2중 이유(5b):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2중 해결(6-7): "그러나 비구름(אֵד)을 그(하나님)가 땅에서 떠오르게 하사 온 지면을 적시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취한] 티끌(עָפָר)로 그 사람(הָאָדָם)을 빚으시고(יצר)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물(נֶפֶשׁ חַיָּה)이 된지라."

5.1.3.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고"(*베호세흐 알-퍼네 테홈*, וְחֹשֶׁךְ עַל־פְּנֵי תְהוֹם)

구약에 80회 사용된 *호세흐*('어둠')이란 명사는 *토후*와 동의어로 사용되며(욥 12:24-25; 사 45:18-19; 렘4 :23), 창조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창조된 어둠(1:4-5, 18)과는 구별된 비 존재적 흑암을 가리킨다.

구약에 36회 사용된 *테홈*('깊음')이란 명사의 기본적인 뜻은 "대양, 지하수"(창 7:11; 출 15:5, 8)로서, 우주의 삼분법적 표현인 하늘들-땅-바다(출 20:11; 시 146:6)의 "바다"의 위치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시 135:6의 "깊음들" 참조). 본문에서 "무형과 공허의 땅"과 "어둠의 깊음"이 병행 위치에 있으므로 깊음은 땅에 종속되며(hyponymic; 시 148:7; 잠 3:19-20), 비 존재적 깊음의 "물들"이 땅을 덮고 있으며(1:2하, 6-8), 셋째 날에 창조된 "바다들"(1:10)과는 구별되는 창조 이전의 비 존재적 "깊음"이다.

위에서 살핀 대로 비 존재적 땅의 무 형태적이고 비거주적인 상황의 소개는 소위 "재창조설"이나 "전 창조 혼돈설"이 잘못된 이론임을 지적한다. "땅이 혼돈하고"라는 번역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의 창조신화로서 가나안 신들인 바알-얌(Baal-Yamm), 바빌론 신들인 마르둑-티아마트(Marduk-Tiamat) 사이의 '혼돈과의 투쟁'(Chaoskampf)을 배경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는 잘못도 지적할 수 있다.

창조가 "잘라서 만든 구체적 모양"일진대, '흑암'에 대조된 빛/흑암, 즉 낮/밤(날 1), "깊음/물들"에 대조된 궁창 위/아래 물(날 2), 물로 덮은 무형과 공허의 땅에 대조된 땅/바다(날 3)와 특히 "풀, 씨가진 채소와 과목"을 생산하는 땅(11절)은 '무형'(*토후*)에 대한 해답이다. 첫 삼일의 재료로써 다음 삼일의 내용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땅이 생물(육축, 기는 것, 짐승)"을 내고(24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시므로(26절) 비거주적 '공허'(*보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다. 따라서 이 본문을 대하는 어떤 시대의 독자들이라도 생존과 거주에 필수적인 땅,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5.2. 성령님과 우주창조

5.2.1. "하나님의 영은"(*베루아흐 엘로힘*, וְרוּחַ אֱלֹהִים)

이 엿새 우주창조의 실제적 수행자는 누구인가? 창 1:2의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 '영'(*루아흐*, רוּחַ)이란 단어는 구약에 389회 나오는 바, 자연의 바람(115회); 인간의 호흡, 감정, 기질, 영(141회); 초자연적 영(29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104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רוּחַ אֱלֹהִים 12, רוּחַ회; 창 1:2; 41:38; 출 31:3; 35:31; 민 24:2; 삼상 10:10; 11:6; 19:20,23; 대하 15:1; 24:20; 겔 11:24)은 "여호와의 영"(רוּחַ יְהוָה 27, רוּחַ회)과 같은 실체이며, 곧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성령님(רוּחַ הַקֹּדֶשׁ, 시 51:11; 사 63:10,11)이시다. 유대인과 진보주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바람"이나 "강한 바람" 등으로 번역함은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글 개역성경에 "하나님/여호와의 영"을 모두 "하나님/여호와의 신"으로 번역한 것도(예외: 대하 18:23), "신"은 한글 개역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의 번역이므로(예: 삼상 5:7-6:5에 6회 사용된 "이스라엘 신") 오해와 혼란의 여지가 있다(찬송가 172장의 '성령'과 173장의 '성신' 참조).

5.2.2.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메라헤페트, 알-퍼네 함마임*, מְרַחֶפֶת עַל־פְּנֵי הַמָּיִם)

여기 '수면'(*알-퍼네*, עַל־פְּנֵי)은 곧 땅을 덮고 있는 물로서의 '깊은 물'을 가리킨다. "운행하시니

라"(3회; *메라헤페트*, מְרַחֶפֶת)는 강세형(Pi'el) 현재분사로서, 그 동작의 주체는 독수리의 능력있는 활동의 계속성을 묘사한다. 신명기 32:11에는 새끼위에 "너풀거리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과[47] 예레미야 23:9에는 공포 중에 "떨리는" 뼈들의 격렬한 동작을 보여준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 32:10-11과 같은 문맥인 출 19:4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 보호, 인도하는 심상은 우주와 이스라엘 국가의 창조에 성령님의 사역이 본질상 같은 것임을 강조한다.

홍해가 창 1:2의 땅의 무형-공허와 깊음 위의 흑암에 해당한다면, 그 바다 가운데를 '쪼개어'(*바카*, בָּקַע; 출 14:16,21; 느 9:11; 시 78:13; 사 63:12) 육지를 내심은 우주창조의 '나누는'(*바달*, בָּדַל; 창 1:4,6,7,14,18; 비교: 욥 26:10; 38:19-20) 역사에 해당할 것이다. 그 '쪼개는' 역사의 주체는 동쪽 '바람'(*루아흐*; 출 14:21) 혹은 하나님의 코의 '김'(*루아흐*; 출 15:8,10)으로 묘사된 성령님이심을 이사야와 학개 선지자는 확증한다(사 63:11-14; 학 2:5).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교회(행 7:38)가 홍해에서 집단적으로 세례 받음(고전10:1-2)과 모형론적으로 신약교회가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 받음(고전 12:13)에 해당되는 이유이다. 성령님의 창조사역이 독수리의 심상으로, 독수리의 심상이 우주와 이스라엘(교회)의 창조에 각각 연결된다는 사실은, 앞으로 상론하겠지만, 우주-인간의 창조-보존-심판과 재창조-성화-영화에 나타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뜨겁고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다.

5.2.3. 성령님과 그룹들(Cherubim, כְּרֻבִים)

독수리의 날개에 대한 또 다른 인유(引喩)는 영물들 중의 하나인 '그룹'과 관련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천상의회'(욥 1:6-12; 왕상 22:19-22)에 둘러 선 영물들 중에 날개와 병거 바퀴들을 가진 그룹들이 그 보좌의 방향을 잡고 움직인다(겔 1, 10장; 비교: 사 6장; 계 4:8; 9:9; 12:14). 창 1:2의 찬양적 주해인 시 104:3은 구름들을 자기의 병거로 삼으시고, 바람(원어 '*루아흐*'는 성령님을 가리킬 수 있다)의 날개들 위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한다(비교. 삼하 22:8-16).

고금을 막론하고 큰 새의 날개모양을 한 먹구름을 볼 수 있듯이,[48] 성경은 독수리 날개-그룹의 날개-성령님(바람)의 날개-구름을 연상하며(삼하 22:11; 시 18:10; 139:7-9; 대상 28:18), 출애굽 여정의 구름(불)기둥이 독수리의 날개로 연상되는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민 9:15-23; 신 33:26; 느 9:19-20; 시 68:4,33).[49] 우주-성막-성전-그리스도-성도-교회-천국의 설계도면과, 영광의 '구름'(Shekinah)으로 임재함과, 성막/성전의 막/벽 지성소 휘장에 그려진 그룹, 언약궤를 덮도록 조각된 그룹, 더 나아가 성전으로 그려지는 에덴동산과 시내산 등은 모두 동일하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다.

우주창조에 '우리'(창 1:26)라는 복수(複數)의 언급과 에덴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창 3:24)의 존재는 창 1:1-2:3의 창조 기사를 고대근동의 천상의회의 문맥에서 이해하게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

47)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רוּעַ, Hi.),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며 맴돌며(יְרַחֵף), 자기 날개를 펴서(פָּרַשׂ) 새끼를 받으며(לָקַח), 자기 날개(אֶבְרָה, pinion) 위에 그것을 업는(נָשָׂא) 것 같이"(신 32:11) 돌보신다고 말씀하신다.

48) 수메르어 IM.DUGUD, '빽빽한 구름' = 악카드어 *Anzû*, '신화적 새'는 사자 모습의 머리와 '톱 같은' 주둥이를 가진 거대한 새를 가리키며 그 날개를 펄럭일 때 폭풍과 모래돌풍이 일어난다. 운명을 결정하는 토판을 Enki(Ninurta and Turtle 신화에서) 혹은 Enlil(Anzu 시에서)로부터 훔친 것을 Ninurta가 이 새를 죽이고 그 토판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49) 독수리의 날개와 하나님의 보호 인도(예: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창 김진경 박사의 간증—북한에서 사형선고 받고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의 "독수리가 내려와 날개 아래 자기를 감싸는 기분)에 대한 연상은 룻 2:12; 사 40:31; 시 18:11; 17:8; 36:7; 57:1; 61:4; 63:7; 91:4 등을 보라. 독수리의 비상과 관련된 동사들인 גָּבַהּ(hif'il형, 욥 39:20), עָלָה(hif'il형, 렘 49:22), דָּאָה(신 28:49; 렘 48:40; 시 18:11)에 비교하여 동사 רָחַף는 "보호, 인도"에 대한 선택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창조 기사의 패턴(가라사대-있으라/나뉘라-그대로 되니라-보시기에 좋았더라-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빠진 고리'(missing-link)는 바로 성령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의 능력 있고 능동적인 사역을 통하여 창조가 완성된 것이다.

5.2.4. 성령님과 비둘기

교회사적으로 비둘기는 사랑(아 2:14)과 순결(마 10:16)과 복음의 전령사(창 8:8-12)란 구약적 의미 속에 성령님의 대표적 상징이다. 독수리의 날개 치는 모습이 예수님이 공 사역 직전 세례 받으신 후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καταβαίνον) 자기 위에 임하심(ἐρχόμενον)을 보시니라"(마 4:16)의 배경적 도움이 되는 것은, 노아홍수 후의 '재창조의 시작'에 비둘기의 첫 언급과(창 8:8-12), 이스라엘 국가 창조에 묘사된 독수리(신 32:10-12)의 상징적인 출애굽 '세례'(고전 10:2; 참조: 12:13)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비둘기 상징의 문헌적 유래는 주후 2세기 바빌론 탈무드(Hagigah 15a)에 벤 조마(Ben Zoma)의 "하나님의 영은 마치 새끼 위를 품되 그들을 접촉하지 않는 비둘기처럼 수면 위를 품고 있었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기 주석가인 랍비 라쉬(Rashi; 주후 약 1040-1105) 역시 이 전통에서 해석한다.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계셨다. 영광의 보좌는 공중에 서 있었고, 그 거룩하신 분—그는 찬송을 받을지라—의 입의 영과 보금자리에 품고 있는 비둘기 같은 그 분의 말씀에 의하여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50]

5.2.5. 장인(匠人)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창 1:1의 선포와 그 구체적인 창조가 3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설명되기 전에, 2절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주창조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신다는 사실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기초와 출발점이다.

우주창조를 신전건축 진행과정으로 묘사하는 창 1:1-2:3에서, 성령님은 건축 일체의 과정인 설계, 기공, 진행, 완성에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장인(匠人)"으로 사역하셨다(잠 8:30의 "창조자"란 히브리어 단어 "*아몬*"[אָמוֹן]은 수메르어 "*움미아*"[ummia]에서 유래한 "장인"이란 뜻이다. 비교: 사 40:13[51]).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요 20:22) 하실 때, 하나님의 입김, 즉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나오며,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므로,[52] 창조사역에 "가라사대"[53]와 "하나님의 영의 운행"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시편 33:6에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기운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보는 것 사이에는 내면적 일치가 있다(사 11:4; 참조. 성령님의 강림과

---

50) I. Abrahams, *Studies in Pharisaism and the Gosp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4) 47-50에 인용; 사해사본의 증거를 위해 D. C. Allison, Jr., "The baptism of Jesus and a New Dead Sea Scroll," *BARev* 18 (2, 1992) 58-60를 보라.

51) 사 40:13절의 רוּחַ יהוה의 여자적 번역은 "여호와의 영"이지만 LXX는 "νούς(마음, 지성) κυρίου(주의)"라 번역했고 신약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전 2:16; 롬 11:34). νούς는 대체로 인간의 의지적이고 합리적인 지성과 연결되는 바, 사 40:12-14의 "이해하다, 교훈하다, 보여주다, 가르치다, 지식" 등의 용어는 지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본문은 우주 창조에 어떤 고문(顧問)도 필요 없는 여호와의 능력을 확증한다. 사실 그분은 장인(匠人)들에게 보통 주시는 "창조적인 기술"(תְּבוּנָה; 출 31:3)과 그분의 천상 모형을 따라 "질서[와 조화]"(מִשְׁפָּט)를 성취하는 능력을 가지신다(비교: 왕상 6:38; 겔 42:11). 따라서 이사야는 우주의 창조를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רוּחַ의하여 착수되므로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의 불비교성을 설명한다. 창조는 רוּחַ יהוה의하여 계획되고 하늘, 땅, 바다, 산들이 존재하게 하셨다.

52) 각주 30 참조.

53) 신의 말에 의한 애급의 창조 개념은 "Atum신의 창조" 신화나 특히 "Memphis의 신학"이라 부르는 Ptah신의 말과 창조에 대한 언급이 아주 분명하다. 자세한 논의는 J. A. Wilson, *ANET*, 3-6 및 K. Koch, "Wort und Einheit des Schöpfergottes in Memphis und Jerusalem,"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62 (1965) 251-93을 보라.

입술의 변화[사 6:5-7; 행 2:2-4; 벧전 4:11).

5.2.6. 하나님의 군대인 우주

우주창조의 대 선포요 요약인 창 1:1은 결론 부분인 2:1-3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2:3) "천지와 '그들의 모든 군대'(*콜-쩌바암,* כׇּל־צְבָאָם)가 이루니라"(창 2:1)고 반복한다. "그들"이란 대명사는 앞에 사용된 천지(우주)를 가리키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해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만군의 하나님/여호와"(*말레아흐 엘로힘/아도나이,* אֲדֹנָי/סי אֱלֹהִים צְבָאוֹת; 이 표현은 삼상 1:3에서 말 4:3까지 274회 사용)께서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건설-보존-완성을 위해 사용하시는 군대이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시다(시 24:10).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을 잇는 족장들의 일대기 속에 엮어지는 모든 복의 체험담은 자연만물을 그 군대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중심체였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역시 자연만물을 그 군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신적 용사'(the divine warrior)와 '여호와의 전쟁'으로 묘사한 것도(출 15:3,4; 민 10:35; 시 24:8; 사 42:13; 습 3:17) 이런 맥락에서 잘 이해된다. 신앙과 순종의 이스라엘을 "위하여"(for) 앞서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은 홍해(출 14:21), 요단강(수 3:16), 기손강(수 4:20)의 기적에 자연을 군대로 사용하셨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against) 싸우시는 "징계의 하나님" 역시 이방 대적들이나 한재, 기근, 염병 등의 자연 재해를 그 군대로 사용하셨다.

5.2.7. 하나님의 군대인 우주의 하나님 은혜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왕국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이 왕국의 중심특성이 은혜임을 창세기 초두부터 계시록의 종결까지(참조: 계 22:21, "주 예수님의 은혜") 명백히 밝히고 있다. 창 1:1-2:3은 우주(천지)창조가 왕(신)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왕국(신국)의 중심부인 왕궁(신전)건축, 즉 부분으로 전체를 묘사하는 대유(代喩, synecdoche)인 것과, 우주는 하나님 왕국의 군대요, 그분의 은혜왕국 건설의 역군이요, 특별히 "신적 용사"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교향악단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은혜'는 창조의 목적과 의미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참조: **3.1.3.2.**), 자존과 자족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롬9:14-24) 주권적 은혜이다. 신약의 관점에서, '은혜'(*카리스,* χαρις)는 삯과는 달리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카리스마,* χαρισμα; 비교, '은사')이요, 그 은혜(선물)를 받는 자는 '기쁨'(*카라,* χαρα)과 '감사'(*유카리스,* ευχαρις)가 있기에, 온 우주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참조: '식사 감사기도'를 뜻하는 grace).

성경에 언급된 우주합창단을 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시위하는 만물(롬 1:20), 하늘과 궁창 및 낮과 밤(시 19:1), 별들(욥 38:7; 시 148:3), 하늘과 땅(사 49:13), 하늘과 땅의 깊은 곳 및 산과 삼림(사 44:23), 산들과 작은 산들 및 손바닥을 치는 들의 모든 나무(사 55:12), 하나님의 목소리一뇌성, 지중해 파도, 레바논 산맥의 백향목, 가데스 광야(시 29:3-9), 파도의 박수와 산악의 합창(메아리; 시98:8), 돌들(눅 19:40), 시내산 예배의 서곡인 우뢰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천사의 나팔(출 19:16; 20:18; 히 12:19), 천사의 나팔(마 24:31; 고전 15:51-52; 살전 4:16), 천상의 영물들(시 29:1; 사 6:2-3; 눅 2:13-14)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창1:1-2:3의 우주창조 기사의 자매편 격인 하나님 찬양시(시 8장; 19:1-6; 29장; 65:9-13; 104; 암 4:13; 5:8-9; 9:5-6)는 다시금 우주의 합창을 환기시킨다.

성령님은 우주를 단장하시는 분이시다(욥 26:13, בְּרוּחוֹ שָׁמַיִם שִׁפְרָה; 시 33:6; 비교. 사 40:13,26). 우리는 "하늘의 군대"(삿 5:20; 시 33:6; 사 40:26; 느 9:6)인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의 합창"(욥 38:7; 시 148:3; 눅 2:13)을 듣는다. 현대 물리화학의 이론이 빛-소리-열의 자유전환을 설명하거니와, 일등별로부터 팔등별의 한 밤의 하늘은 팔도 화음계의 웅장한 대 자연 교향곡을 만끽하게 한다. 계명성 사탄의 타락과(비교: 사 14:12-15; 겔 28:13-15) 인간의 타락아래(참조: 우주에 가장 걸맞지 않는 죄인에 대한 시 104:35)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롬 8:22)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구원의 은총을 우주와 함께 합창하는 것이다.

6. 성령님과 인간창조

6.1. 성령님의 인간 (재)창조

우주창조의 중심이요 절정인 사람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남성(*자하르*, זָכָר)과 여성(*네케바*, נְקֵבָה)으로 창조하셨고(창 1:27), 흙에서 [취한] 티끌로 사람을 빚으시고(*야짜르*, יָצַר),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물(*네페쉬 핫야*, נֶפֶשׁ חַיָּה; 창 1:20 참조)이 되게 하셔서(창 2:7), 창조하는 기쁨의 극치(*솨아슈임*, שַׁעֲשֻׁעִים)를 인간창조에 두었다(잠 8:30-31).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축하하는 해설 시이다. 이 경배의 문맥에서 29하-30절은 주로 인간과 짐승의 창조를 언급하면서[54] 땅을 보존하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피조물과 관련하여 "주[원문: 당신]께서 그들의 영(רוּחַ)을 거두시니(אָסַף) 그들이 호흡이 끊어져(גָּוַע; 창 25:8, 17 비교) 그들의 먼지를 향하여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당신의 영(רוּחַ)를 보내어 저희가 창조되어(בָּרָא, Ni.) 당신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한다.

이른 봄 죽은 것 같은 "지면을 새롭게 하심"(시 104:30)이 모두 성령님의 단장하시는 역사이라면, 부모는 늙고 병들고 죽으나 그 후손이 유전적 닮은꼴로 싱싱하게 세대를 잇는 자녀출산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55] 성령님의 일반은총이다(욥 31:15; 32:7-8; 33:4; 34:14).

성령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두 손"으로 인간을 지으심(마 12:28 = 눅 11:20; 엡 2:10)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위함이다(시 139:13, 15). 우리가 숨을 들여 쉬고 내뿜는 동작을 할 때마다 성령님의 일반은총적 임재를 실감하며, 성령님이 내 모습 이대로 만드신 그 "신묘막측"한 최고 걸작품을 감상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시 8:3-9).

신 32:6, 그분이 친히(אוּה) 너를 지으신(קָנָה)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이 친히(אוּה) 너를 만드셨고(עָשָׂה) 너를 세우셨도다(כּוּן, Pol'el).

욥 31:15, 나를 태속에 만드신(עָשָׂה) 자가 그도 만들지(עָשָׂה)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세우신 자(כּוּן, Pol'el)가 하나가 아니시냐?

시 71:6, 내가 모태에서부터 [출산 시] 주의 붙드신바(סָמַךְ Ni.)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탯줄을] 자르신(גָּזַז)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 94:9, 귀를 이식하신(נָטַע)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יָצַר)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 139:13,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קָנָ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직조하셨나이다(סָכַךְ).

시 139:14,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만드심(עָשָׂה)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시 139:15, 내가 은밀한데서 만듦 받고(עָשָׂה) 땅의 깊은 곳에서 [채색] 자수 놓음(רָקַם)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시 139:16, 내 무형질(גֹּלֶם)을 주의 눈이 보셨으며,

시 149:2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עָשָׂה)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6.2. 성령님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의 인간 재창조(중생-성화-영화)

사람은 진화론적 생물학이 분류하는 척추 포유동물의 진인원(眞人猿)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닌(엡 4:24)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의 왕(의)-선지자(진리)-제사장(거룩)의 삼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나 여전히 본체론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지닌 자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 산송장 같은

---

54) 시 104의 문맥적 분석은 하늘(2-4), 땅(5-9), 생명 동산된 땅(10-18), 하늘의 해와 달이 주는 땅의 생명질서와 순환(19-23), 바다(24-26), 동물과 인간(27-30) 및 창조(보존, 심판)주 여호와 찬양(31-35)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35절은 역리적으로 창조 세계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존재는 바로 죄인과 악인이며, 구원받은 자의 창조주 찬양은 그 구속의 감격으로 상승(相乘)됨을 강조한다.

55) 시 100:3, "여호와 그분이(אוּ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지으셨고(עָשָׂה־)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וְלֹא אֲנַחְנוּ).". 한글개역이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번역한 것은 유대인 읽기(Qere')의 전통을 따라서 וְלֹא를 וְלוֹ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엡 2:1; 딤전 5:6) 나에게 다시 생기되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본체적 형상(고후 4:4; 골 1:15; 히 1:1-3)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고전 12:3),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고전 11:7; 약 3:9; 롬 8:29; 엡 2:10; 골 3:10),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게 하시므로(고전 15:49; 고후 3:18; 빌 3:21; 요일 3:2),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충만하신 능력과 은사를 간구하며, 창조-섭리-심판과 재창조-성화-영화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6.3. 하나님의 군대인 인간

창 1:1-2:3은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인간과 그의 생존의 터전인 땅을 강조한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란 이름도 '사람'(*아담*, אָדָם)은 본래 '붉은'(*아돔*, אֱדֹם) "흙/땅"(*아다마*, אַדְמָה)에서 지음받고 흙/땅으로 돌아가는 신토불이임을 어원적으로 설명한다(창 2:7; 3:19). 우주가 하나님의 왕국건설의 군대라면,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본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창 1:28), 결혼의 합심을 통하여 "둘이 하나보다 나은"(전 4:9-12; 마 18:18-20) 지역사령관들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한 사람, 롬 5:12)의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쳐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으나, 참(완전한)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고전 15:45)으로서 십자가에서 옛 인류의 계보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부활하신 "둘째 사람"(고전 15:47)으로서 새 인류의 계보에 조상이 되셨다. 따라서, 죄와 사망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비교할 수 없도록 "흘러넘치는"(롬 5:20) 은혜왕국을 시위하신다.

이것이 출애굽 하는 노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출 6:26; 7:4; 12:41)로서 "행진"하는(출 13:18) 은혜이다. 이것이 가나안 거민을 진멸할 군대로서의 출애굽 세대 인구조사 후에(민1-10장; "군대"란 단어가 모세오경 90회 중 민수기에 77회 사용),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민 14:22) 그들은 진멸 당하였으나(민 11-25장), 광야 차세대의 병역 인구조사와(민26장) 광야 38년 반의 방황-진멸 여정을(비교: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탐까지 1년반이 걸렸다) 가나안 정복-승리 원정으로 재해석하는(민 33장)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수 1:1-5:12; "건너라"[*아바르*, עָבַר]), 정복하고(수 5:13- 12:34; "가져라"[*라카흐/라카드*, לָקַח/לָכַד]), 분배하고(수13-21장; "나누라"[*할라크*, חָלַק]), 지키는(수 22-24장; "섬기라/지키라"[*아바드/샤마르*, עָבַד/שָׁמַר]) 사명에 앞장 선 85세의 갈렙과(수 14:6-15) 110세의 여호수아가(수 19:49-51) 받은 기업의 은혜이다.

에베소서에 그려진 교회 상(왕국시민, 영적 가족, 성전, 몸)의 결론 역시 영적 군대이다(엡 6:10-20). 십자가로 승리하신 총사령관 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전쟁의 게릴라 소탕 전투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즐긴다. 그 무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전신갑주이며, 오늘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주 예수님은 돌격명령(battle-cry)을 내리신다. 사탄왕국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성령님의 강력"(고후 10:4-6; 마 12:28)으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는 완성의 그날까지, "일당천 이당만"(신 32:30)의 개선가를 합창하는 것이다.

6.4.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최상의 악기인 인간

만물의 영장인 인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왕국건설에 동참하는 우주군대의 지역사령관이요, 만물이 하나님의 악단이라면 인간 역시 함께 찬양하는 지휘자이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향악단의 개성 있는 악기라면, 인간은 그 악기들 중의 최상 악기이다.

인간의 존재 의미와 그 궁극적 목적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롬 11:36; 시 29:9), 이 영광은 찬양으로 고백되기에(참조: 영광송[doxology]),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릇 내 이름으로 부름 받은 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사 43:7)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강조하신다. 인간은 출생신호의 "응아" 울음소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입력하신 절대음 A(라)를 부른다. 우주만물과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들(히 1:14)의 찬양보다도(시 150:1-2), 인간이 만든 모든 종류의 악기보다도(시 150:3-5; 소고, 수금, 비파, 제금, 현악, 퉁소, 나팔, 호각), 하나님이 만드신 최상의 악기인 우리의 온 몸으로, 손바닥을 치며(시 47:1), 춤을 추며(출 15:20; 삼하 6:16 = 대상 15:29; 시 149:3; 150:4), 특별히 목소리로 찬양하며(시 150:6;

104:33-3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6.5.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찬양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도시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천상군대와 이스라엘 지상군의 합동작전이었고(수 5:13-15), 전쟁이라기보다는 무장 군인과 나팔 부는 제사장이 어우러진 찬양대 입례송 같았으며(수 6:1-21; 비교: 스 3:10), 가나안 땅 정복의 결론적 보고는(수 12:9-24) 마치 헨델의 할렐루야를 듣는 듯 하다. 미디안을 쳐부순 300명의 기드온 용사의 나팔과 외침은(삿 7:15-23) 솔로몬의 120명 나팔 찬양대(대하 5:12)와 다윗의 288명 찬양대(대상 25:7)를 기억나게 한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앞에서 백성과 함께 금식기도 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성령님이 임한 야하시엘이 이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대하20:15,17)고 예언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두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복병"(천사들 혹은 적군들 자기들끼리 살육)에 의해 적군은 전멸되었다. 그 찬양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이미 이긴 전쟁으로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대하 20:20; 비교: 대상 16:34; 대하 5:13; 시136편)라고 찬양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시 22:3)

6.6.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현대종교와 문화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에 근거한 구원을 외치면서 많은 성경의 용어를 차용하고 있지만(예: 믿음, 소망, 사랑, 화해, 평화), "은혜"란 단어는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은혜는 철저하게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절대로 추앙하지 않으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 선물이 되기 위하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고귀한 대가 지불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율법서로 알려진 모세오경은 12세기 유대인 철학자요 주석가인 마이모니데스(Maimonides)가 확정한 대로 "하라"의 명령 248개(이것은 인체 구성 부분의 합계)와 "하지 말라"의 명령 365개(이것은 일년 365일)로서 총 613개의 율법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613개의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외에 아무도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모든 인생은 저주받은 자이며, 십자가에 처형 받을 존재들인 것이다(갈 3:10-13; 롬 3:19-20). 우리가 은혜로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후(고후 5:17), 은혜로 누리는 "하나님의 의"(롬 3:21-24; 갈 2:16; 3:27)에 비하면, "우리의 의(선행과 공로; 십일조, 주일성수, 새벽기도 등)"는 다 "더러운 옷"(사 64:6, 원어 [*베게드 잇딤*, בֶּגֶד עִדִּים]는 "[월경]주기들의 옷"이란 뜻)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Sola Gratia)이다. 나의 나 된 것(being)과 선한 삶(doing)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전 15:10)임을 겸손히 고백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인은 왕이 앉은 "공의"의 보좌로 나갈 뿐이나, 그리스도인은 필요할 때 예수님 안에서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히 4:16).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누구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영광"을 찬양할 수 밖에 없다(엡 1:6; 2:7). 입술이 인간 더러움의 대표라면(사 6:5; 약 3:6), 성령님 안에서 재창조된 첫 증거는 입술의 정결이며(사 6:6-7; 행 2:3-4; 엡 5:3-4; 벧전 4:11), 성령충만의 첫 증거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찬양이다(엡 5:18-19). 불신자들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김"을 논하는 사도바울의 가슴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롬 1:25)이라는 신앙고백적 영광송으로 불붙었다(logic on fire). 이것이 본문의 논리적 흐름에 별 상관없는 감성적 찬양, 즉 소위 "파격적 문장"(anacoluthon 혹은 solecism)의 이유이다(참조: 롬 9:5; 11:36; 16:27; 엡 3:21; 빌 4:20; 딤전 1:17; 벧전 4:11; 벧후 3:18; 유 25; 계 1:6). 이것이 구약성도들이 온갖 형태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매듭하는 이유이다(참조: 시편 5권의 각 결어—41:13; 72:18-19; 89:52; 106:48; 150:1-6).

6.7. 하나님의 천상(天上) 은혜왕국의 찬양

천국에서는 밤낮을 쉬지 않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네 영물들(계 4:8-9), 24

장로들(계 4:10-11; 11:16-18), 네 영물과 24 장로들(계 5:9-10), 천천 만만 천사들(계 5:11-12; 7:12),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계 5:13),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든 천국성도들(계 7:10; 11:15; 12:10-12; 15:3-4; 19:6-8), 천국성도들의 할렐루야(계 19:1-3)와 24 장로와 네 생물의 화답송(계 19:4).

우리는 "괴로우면(*카코파쎄오*, κακοπαθεω—나쁜 감정) 기도하고, 즐거우면(*유쑤메오*, ευθυμεω—좋은 감정) 찬송하면서"(약 5:13; 비교: 전 7:14; 행 16:25), "이미" 내 심령에 임하였으나(마 12:28), "아직" 완성되고 있는(계 22:21) 은혜의 천국을 실습하며, 천상 찬양대에 동참하는 것이다.

결론

우리는 고대근동학적 배경에서 창세기 1:1-5이 말하는 창조사관을 확립하게 되었다. 성경적 창조사관은 인간이성(理性)이 사유(思惟)해 낸 허무한 동양적 윤회사관이나, 가나안 바알 종교적 윤회사관이나(사사시대 310년간 바알 종교와의 혼합 후[삿 3:5-6; 10:6] 신앙의 되돌이 걸음 참조), 맹랑한 서구의 진화론적 직선사관과 결코 공존할 수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조로 시작되어(창 1-2장),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 노릇하였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롬 5:17)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타락과 구원으로 진행되어(창 3장-계 20장), 인간은 언제나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계 22:11상) 타락의 역사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시는"(계 22:11하) 구원의 역사이다. 역사는 마침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계 22:20)라는 완성으로 분명히 마감될 것이다(계 21-22장).

그리스도인의 창조사관은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History is His Story)라는 말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계 22:13)고 선포하시는 주 예수님 중심의 구원사관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ek; 창조-재창조), 주로 '말미암고'(dia; 섭리-성화), 주'에게로'(eis; 심판-영화) 돌아가기에"(롬 11:36),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연대(年代)"로 역사를 조명해야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바로 이러한 창조사관 위에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이 제시하는 인물, 장소, 사건, 연대의 자료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규범임을 고백하면서, "성경이 모든 학문 연구의 최고, 최종 교과서"임을 천명할 사명을 확인한다. 올바른 창조사관에 기초한 모든 학문의 통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주 예수님은 모든 학문의 영역에도 주인 되심을 주장할 "분야주권"(sphere sovereignty)의 개혁주의 문화관-세계관을 가지고, 진화론적 인본주의와 종교다원화의 세속정신이 팽배한 학계와 교계 앞에서 복음 진리의 나팔수 역할을 계속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중생한 학문수행"의 올바른 질문과 그 신앙고백적인 해답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